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6, pp.471-478, Nov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471

JCCT 2023-11-55

#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buse and Neglect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최지현*, 정미숙**

**Choi Jihyun*, Jeong Misook****

**요 약**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도 한국복지패널(KWPS)의 16차 연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총 3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7.0과 Hayes(2013)의 Macro Process(model 4)를 활용하여 관련 변인 간의 상관분석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학대 및 방임,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주관적 행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buse and neglects and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To this end, dat from the 16th year of the 2021 Korea Welfare Panel(KWP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used. In this study, 1st, 2nd and 3rd graders of high school were analyzed, and data from a total of 325 stude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utilized SPSS 27.0 and Hayes(2013)'s Macro Process(model 4) to verity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s between 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directly affect adolescents'Internet addiction. Second, it was analyzed that subjective happiness mediated the effect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Abuse and Neglect, Internet Addiction, Subjective Feeling of Happiness

*정회원, 경남대학교, MSC교육부 강의전담 (제1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스마트융합공학부 소방방재전공 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msjeong@cs.ac.kr
Dept. of Smart Covergence Engineering,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Major, Changshin Univ, Korea

#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아울러, 2019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선언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대면 접촉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non-face-to-face classes)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특히 인터넷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은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서비스이며,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연결은 스마트폰의 과사용 및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년 대비 0.6% 감소, 지난 5년 대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과의존 위험군은 하락했지만, 청소년은 매년 상승세를 지속했다. 2021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37.0%였으나 2022년에는 40.1%로 3.1%나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또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해 여가 활동을 하는 비율이 2018년도 74.4%에서 코로나 19 발생 이후 99.1%로 크게 증가하여, 청소년 인터넷 의존도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1]. 여기서, 스마트폰 과의존과 인터넷 과의존을 동일시 하여 해석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접촉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스마트 기기가 필수적인 요소로 변화되어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속은 더욱 편리하게 되었다[42].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열 명 중 아홉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2]. 이동 중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경우가 100%에 달한다는 결과를 내놓아 그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1].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게임, 소통을 위한 목적,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사진 촬영 등 여가 활동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과도한 인터넷 의존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3][4][41].

과다한 인터넷 사용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불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6]. 특히 청소년은 자기 조절 능력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에 더 취약하여 인터넷 과의존으로 인한 공격성, 충동성, 우울감, 가출, 학업 부진, 사기, 절도 및 폭행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6~11].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과의존의 야기 요인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제 행동이론(Problem-Behavior Theory, PBT)에 따르면 중독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은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12]. 그러므로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체계인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과 같은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13]. 학대 및 방임은 가장 부정적인 양육 태도이며 그 어떤 양육 태도 보다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인 현실 도피를 위해 인터넷에 과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학대 및 방임의 정도가 심할수록 인터넷 과의존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다[14~19].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이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미비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앞서 언급한 인터넷 과의존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선행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은 청소년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이란, 자신의 진정한 본성(Daimon)을 깨닫고 발휘하는 것으로 타인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인식하여 실현하는 것이며, 개인적 성장과 발달, 도전과 노력과 관련된다고 보았다[20]. 이는 후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21~24].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

적응 가운데 피학대 청소년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후유증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다[25][26].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행복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를 완화해줄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을 검증하고자 한다.

행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최고의 목표이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이자 공통적인 바람일 것이다. 그동안 행복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측정하기에 한계를 가진 특성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주관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내적 기준에 따라 개인의 삶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측정이 가능한 개념으로서의 행복으로 정의 내리며 과학적 접근을 통한 객관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27].

주관적 행복은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측정되며, 주로 외부 환경 그 자체보다는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한 해석방식에 의해 결정된다[28].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정신적 어려움의 결정적 요인은 개인의 기질적 취약성이 아니라 행복감이 낮거나 개인의 강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강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약점을 약화시킬 수 있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신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29]. 청소년 시기는 심리 사회적 적응 문제와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발달단계로써 청소년기의 안녕감은 청소년기와 이후 성인기 전반에 걸쳐 삶 전반에 긍정적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30]. 그러나 그동안 행복이라는 개념의 추상적 특성 때문에 '행복감'을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의 보호 요인으로써 중요하게 다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학대 및 방임과 행복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이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 시켜주는 주요한 보호 요인으로써 행복을 측정하는 보다 구체화 된 개념인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 요인으로 설정하여 구조적 영향 관계의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본 후, 주관적 행복감이 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이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주관적 행복감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 간에 어떤 매개효과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의 16차년도(2021) 자료[31]를 활용하였으며, 2021년 기준 고등학생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목적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인터넷 과의존, 주관적 행복감에 모두 응답한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총 3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 및 주관적 행복감 변인 간의 가설적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학대 및 방임은 인터넷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로 인터넷 과의존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관적 행복감이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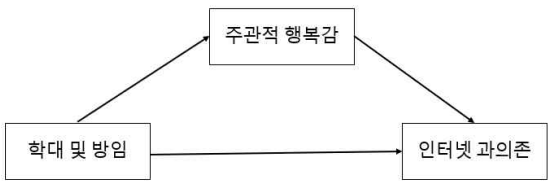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3. 측정 도구

1) 학대 및 방임

한국복지패널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서울아동패널[32]을 참조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간의 경험을 측정하였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및 방임 받은 경험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등의 총 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1. 전혀 없었다, 2. 1년에 1~2번 정도, 3. 2~3개월에 1~2번 정도, 4. 한 달에 1~2번 정도, 5.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36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 과의존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인터넷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간략형 K-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서울아동패널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33][34]. 이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 요인 등 소분류별 문항의 점수를 활용해 중독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응답은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때때로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과의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5로 나타났다.

3)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서울아동패널을 참조하여 측정하였다[35][36].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내용은 '나는 삶에 만족한다.', '나는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 등의 총 6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1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7.0과 Hayes(2022)의 Macro Process를 이용하여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외에도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 사이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Hayes(2022)의 PROCESS macro for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5.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 총 325명 중 고 1은 97명(29.8%), 고 2는 115명(35.4%), 고 3은 113명(34.8)으로 나타났고, 이 중 여학생이 170명(52.3%), 남학생은 155명(47.7%)인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 성별 비율이 큰 차이 없는 분포를 보였다.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표 1>에서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학대 및 방임의 평균은 1.080(SD=.198), 종속변수인 인터넷 과의존의 평균은 1.397(SD=.391), 매개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3.937(SD=.686)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최소값 | 최대값 |
|---|---|---|---|---|---|---|
| 학대 및 방임 | 1.080 | .198 | 3.605 | 16.965 | 1.00 | 2.63 |
| 인터넷 과의존 | 1.397 | .391 | 1.445 | 2.764 | 1.00 | 3.40 |
| 주관적 행복감 | 3.937 | .686 | -.359 | -.248 | 1.67 | 5.00 |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s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즉,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은 인터넷 과의존(r=.246, p<.01)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주관적 행복감(r=-167,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과의존과 주관적 행복감(r=-.301, p<.01)과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of Key Variables

| | 학대 및 방임 | 인터넷 과의존 | 주관적 행복감 |
|---|---|---|---|
| 학대 및 방임 | 1 | .246** | -.167** |
| 인터넷 과의존 | .246** | 1 | -.301** |
| 주관적 행복감 | -.167** | -.301** | 1 |

4)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학대 및 방임과 주관적 행복감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대 및 방임(B=.398, p<.001)은 인터넷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주관적 행복감(B=-.150, p<.001)도 인터넷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학대 및 방임과 주관적 행복감, 인터넷 과의존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and Neglect and Internet Addiction

| | coeff. | s.e. | t | LLCI | ULCI |
|---|---|---|---|---|---|
| (상수) | 1.557 | .182 | 8.554*** | 1.199 | 1.915 |
| 학대 및 방임 | .398 | .106 | 3.747*** | .189 | .607 |
| 주관적 행복감 | -.150 | .031 | -4.852*** | -.210 | -.089 |
| F=22.550***, R2=.127 | | | | | |

**p<.01, ***p<.001

그림 2. 매개 효과
Figure 2. Mediating effect

주관적 행복감의 부분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시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성이 유의하다고 본다. 간접효과를 보면 하한값이 .023, 상한값이 .181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효과 분해와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Table 4. Verification of Effect Decomposition and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 | Effect | Boot. s.e. | 95% 신뢰구간 | |
|---|---|---|---|---|
| | | | Boot. LLCI | Boot. ULCI |
| 총효과 | .486 | .108 | .273 | .670 |
| 직접효과 | .398 | .106 | .189 | .607 |
| 간접효과 | .088 | .041 | .023 | .181 |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주관적 행복감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구조적 관계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년을 주기로 아동부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 중 16차 자료에 참여한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32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31].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분석을 위해 SPSS 27.0과 PROCESS marcro fo SPSS(v.4.2)를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상관관계 분석,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검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재철 외의 연구와 김희지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37][38].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과의존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선행연구와 맥락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대 및 방임은 그 발생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인터넷 과의존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선행연구에서도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학대 및 방임이 주관적 행복감을 통하여 인터넷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 및 방임과 인터넷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학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39]. Affi외의 연구에서는 학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된 점 등을 볼 때, 학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결과 보고가 부족하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학대 및 방임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40].

본 연구에서는 학대 및 방임을 겪은 청소년이 주관적 행복감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따라 인터넷 과의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번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있어서 주관적 행복감이라는 보호 요인을 찾아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은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므로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등의 실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보호 요인인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위해 가정과 학교, 청소년을 위한 센터 등에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의 위험요인으로써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과 이를 매개하는 주관적 행복감의 효과에 대해 관계를 규명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주관적 행복감이라는 보호 요인이 작용하며, 이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데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인터넷 과의존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터넷 과의존이 가장 심각한 계층은 중학생인데 본 연구의 대상에서 중학생은 제외되었다는 점이 역시 한계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역시 중학생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의 검증을 통하여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현 시대적 흐름이다.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동영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더 이상 종이책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 개척을 위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가 그렇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불안한 미래와 대학 입시로 인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의 습득 시간도 매우 빠른 인터넷에 과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 과의존하는 근본적인 이유나 목적에 중점을 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S. H. Roh,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Depression and Internet Overdependence Under COVID-19: Moderating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by Gend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21, pp. 1813-1828, 2022.

[2]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Current Status of Smartphone Ownership and Use by Children and Adolescents”, 2019.

[3] E. H. Kim, E.Y. Go, ”During the corona era,

adolescents whose daily movements have decreased what a da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20, pp. 897-912, 2022.

[4] K. S. Young, "Internet Addici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 No. 3, pp. 237-244, Jan 2009.

[5] H. J. Seo, J. W. Shin, "A Study on Factors of Internet Overdependence for Adults Using the Decision Tree Analysis Mode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Vol. 25, pp. 20-45, No. 2, June 2018.

[6] T. E. Gladwin, B. Figner, E. A. Crone, & R. W. Wiers, "Addiction, adolescence, and the integration of control and motivation",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Vol. 1, Issue 4, pp. 364-376, October 2011.

[7] K. S. Young,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pp. 899-902, 1996.

[8] M. S. Jeong, H. M. Kim, H. Y. Kwon,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with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needs fulfillment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0, No. 1, pp. 159-174, 2012.

[9] H. Y. Kang, J. R. Son,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Internet and game addiction",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2, No. 4, pp. 733-744, 2007. DOI: 10.17315/kjhp.2007.12.4.004

[10]N. A. Shapira, T. D. Goldmith, P. E. Keck Jr, U.M. Khosla, S.L. McElroy, "Psychiatric features of individuals with problematic internet us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57, Issues 1 - 3, pp. 267-272, January - March 2000.

[11]C. A. Anderson, K. E. Dill, "Video games and aggressive thoughts, feelings and behavior in the laboratory and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8, No. 4, pp. 772-790, 2000.

[12]S. J. Woo,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Children's Depression/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pp. 37-51 Aug, 2017.

[13]N. G. Karaman, "Prediction the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ts",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ssue 52, pp. 137-154, Summer 2013.

[14]N. Y. Kim, H. W. Shim,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on Internet Addi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9, pp. 125-147, 2012.

[15]Y. H. Kim,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Masking on Internet Addi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2, No. 3, pp. 885-900, Aug, 2010,

[16]H. G. Kim, J. U. Ko, "The Effect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Internet Immers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 8, No. 3, pp. 187-201, 2022. DOI : 10.47116/apjcri.2022.03.17

[17]Y. J. Park, D. K. Le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and ADHD i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1, No. 2, pp. 23-41, 2014.

[18]H. H. Oh, H. J.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the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4, pp. 35-57, 2014. DOI : 10.14816/sky.2014.25.4.35

[19]K. A. Ham, J. Y. Shin, L. D. Hun,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on Internet Addiction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Impulsivity",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Vol. 23, No. 2, pp. 19-39, 2015. DOI:10.18230/tjye.2015.23.2.19

[20]Ryan & Deci,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2, pp. 141-166, February 2001.

[21]K. S. Jun, T. Y. Jung, "Happiness Determinants for Korean Adolescents",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5, No. 1, pp. 133-153, 2009.

[22]S. J. Choi, J. S. Hyun,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Youth's Happiness", *Forum For Youth Culture*, No. 27, pp. 179-207, 2011.

[23]S. S. So, C. S. Kim, "The Study on Protective and Risk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7, pp.

375-400, 2016.
[24]S. N. Kim, B. H. Lee, "Analysis of Students' Happiness Degree in Happy School",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2, No. 2, pp. 29-48, 2016. DOI : 10.24159/joec.2016.22.2.29
[25]J. C. Kim, J. S. Lee, K. J. Sung,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on Negative Emotions of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20, pp. 119-139, 2012.
[26]H. S. Shin, M. Song, "The Influence of Maladjustment Behavior and Family Violence on Early Adolescents' Self-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1, No. 1, pp. 23-38, April 2006.
[27]E. G. Seo, "Effects of discrimination, abuse and stress on Korean children self-rated health and happi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Master's thesis*, pp. 1-91, Feb 2011.
[28]Y. H. Kang, "Exploring the constructs of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1, No. 2, pp. 159-177, 2008.
[29]J. E. MADDUX, C. R. SNYDER, and S.J. LOPEZ, "Toward a positive clinical psychology: Deconstructing the illness idealogy and constructing an ideology of human strenghts and potential", *Positive Pyschology in Practice edited by Lineley,* pp. 320-334, 2004.
[30]K. H. Yun, S. Lee,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Temperament on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ffective Attitude",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7, No. 4, pp. 803-815, Nov. 2016.
[31]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Welfare Panel 16th Year Data Codebook", 2021.
[32]Seoul Children's Panel, "Seoul Child Development and Welfare Survey Questionnai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2005.
[33]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Self-diagnosis Questionnaire", *Internet Addiction Response Center*, 2010.
[34]Seoul Children's Panel, "Seoul Children's Panel Study Group, Seoul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Survey Questionnaire (for teenag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2010.
[35]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Happiness Index Establishment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Research Report", *Yonsei University*, 2010.
[36]Seoul Children's Seoul Children's Panel Study Center, "Seoul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Survey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ane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2011.
[37]J. C. Kim, G. J. Seong, H.K. Cho,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xperience of Parental Violence, School Violence, Internet Addiction, and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0, No. 3, pp. 69-97, 2014.
[38]H. J. Kim,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v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ability", *Master's thesis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 1-61, 2010.
[39]M. K. Kim,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buse Experience, Family Stress and Happiness in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 29, No. 6, pp. 41-54, 2011.
[40]T. O. Affi, M. W. Enns, B. J. Cox, R. de Graaf, M. ten Have, and J. Sareen, "Child abus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dulthood", *Journal of Narvous and Meatal Disease*, Vol. 195, No. 10, pp. 797-804, October 2007. DOI: 10.1097/NMD.0b013e3181567fdd
[41]S. Y. Kim, M. S. Choi, C. D. Chung, Y. S. Hong, "A Study on the Effects of Mobile Communicational Devices on the Emotional Stability of the Elder Person",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Vol. 9, No. 6, pp.219~226, 2009.
[42]E. K. Oh, "A Study on the Information Behavior of Students in Specialized High School - A Case Study of B Specialized High School",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9, No. 3, pp.415-423, May 31, 2023.